

애착과 대인관계: 남자 대학생의 부모애착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황 수 민 방 희 정[†] 신 지 은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청년 후기 자녀의 애착과 부모의 애착이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남자대학생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아들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 뿐 아니라 아버지의 부모 애착, 자녀의 부모애착을 연속선상에서 봄으로써 애착안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서울 및 대전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대학생 221명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첫째, 부자(父子), 모자(母子)간 애착유형이 일치하는 비율은 유사하나 부와 일치하는 경우가 약간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청년기 남자대학생이 부와 모 모두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했을 때 대인관계에서 유능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남자대학생과 모와의 애착수준이 낮더라도 부와의 애착수준이 높을 때,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자(子)의 대인관계능력은 자와 모의 애착안정성 수준보다 부와의 애착안정성 수준과 보다 높은 상관을 보였다. 넷째, 대인갈등다루기를 제외한 처음 관계 맺기, 권리주장,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등의 대인관계 하위요인에서 자의 부애착 안정성 수준이 자의 대인관계 능력을 가장 의미 있게 예측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의 모애착은 자의 부애착을 부분매개하여, 모의 모애착은 자의 모애착을 완전매개하여 자의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 수준이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 수준보다 청년후기 아들의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 더 많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이전의 모계 중심의 세대 간 전이 연구와 비교할 때, 부모의 조부모에 대한 내적표상이 딸이 아닌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데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자녀의 부모애착, 부모의 부모애착, 대인관계

[†] 교신저자 : 방희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hjbang@ewha.ac.kr

출생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인간의 경우 대인관계의 원형은 애착(attachment)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Bowlby, 1979). 애착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형성하게 되는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라고 설명되기도 하고(Bowlby, 1958), 안전감을 주는 누군가를 붙잡고 있으려는 최우선적인 욕구로 해석되기도 한다(Baliant, 1959). Bowlby(1982)는 자신의 최초의 이론을 발전시켜 애착을 위협상황에서 종의 생존을 증진시키는 기본적 욕구이자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으로 재인식하였다. 기본적 구조를 가지고 진화하는 애착은 성, 연령, 문화 등 인간과 관련되는 다양한 변인을 제외하고도 남아 있는 원형적인 형태이면서도 연령에 따라 정서적 연결 대상이 다르므로 변화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초기의 관계적 경험과 이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 사이를 연결해주는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s)은 애착표상에 대한 관심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먼저 초기의 관계 경험을 참조하여 자신에 대한 개념을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작용되며 또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결정규칙(decision-rules)을 제공하게 된다(Ross, 2008). 결국 내적작동모델이 애착 대상을 포함하여 타인을 이해하는 것과 가까운 관계에서의 경험을 표상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타인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등 대인관계와 관련된 개념발달을 이끌어 낸다(Ross & Thomson, 2008). 세상에 나와서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나서야 어린 아이는 외부로 발걸음을 돌려 성인, 또래, 연인 등 다양한 형태의 관계에서 적절한 유능성을 발휘할 수 있기에 대인관계에서 애착은 의미 있는 차원이다.

그러나 자녀에게 어머니, 아버지 모두 중요한 애착대상이라는 보편적인 이해의 틀이 있음에도 최근까지 애착 주제는 주로 어머니 중심으로 다루어져왔다. 즉, 정서적인 축을 중심으로 애착이 이해되면서 어머니 중심의 연구가 많았으며, 부모가 함께 다루어지더라도 아버지애착은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졌다(방희정, 2009). 하지만 근래 가정에서의 기대와 사회적 지지의 확대로 인해 자녀양육에서의 아버지 개입의 필요성(Main & Weston, 1981)이 입증되고 있다. 나아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버지가 심리적 안녕감(well-being)과 효율적인 생활에 필요한 자아존중감, 사회성과 같은 개인특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Mack, 1983; 박영림, 최해림, 2002).

청년후기 애착특성

아동기와 성인기를 이어주는 청년기에는 부모와의 애착과 독립된 자기(self)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발달적 이슈가 된다. 성적 성숙으로 시작되는 청년기에 이르러 청년들은 성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까지 변화된 환경적 요구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정체감 확립과 유의미한 타인에 대한 대인 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몰두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개인의 독립을 추구하면서 애착대상이 부모에게서 친구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으로 전환되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다. Hazan과 Zifman(1994)의 연구에 의하면 6~17세 사이의 아동기 및 청소년기 자녀들이 부모보다 동성친구와의 근접성을 유지하는데 몰두했으며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친구관계에서

더 많은 지지를 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청년기의 발달과업 중 한 축인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또래 애착이 상관이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청년기 자녀가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유지하는 것이 높은 의존성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분리-개별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와는 달리 애착대상 전환이 일어나더라도 실제 부모와 높은 애착을 이룬 사람이 또래들과도 높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안된 바 있다 (Armseden & Greenberg, 1987). 국내 연구에서도 분리-개별화를 이루어내면서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정체감을 발달시켜 나가는데 안정적인 애착이 적응의 기반이 될 수 있고 더 높은 자기존중감 및 사회적 적응과 일관되게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휘숙, 2002). 또한 청년기 자녀가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적극적인 직업선택 기회를 갖는데 있어서도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유나현, 2005).

나이가 가족과의 소통이 부재하고 불안정한 애착이 지속된다면 청소년들은 충동통제의 어려움을 겪고(이경남, 2002), 스트레스 상황에 쉽게 위축 될 수 있다(Sroufe, 2005). 낮은 애착 수준은 심리적 문제 뿐 아니라 면역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Krantz & McCeney, 2001). 특히 주목할 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모와 또래에 대한 수용성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위기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부모를 보다 안전한 기지로 활용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보호요인으로서 부모와의 안정애착은 또래애착과는 다른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Marvin & Britner, 1999). 결국 안정적 부모애착은 항상성을 깨고 변화해

야 하는 청년기 특유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녀들의 적응과 발달에 중요한 지지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애착지속성: 부모의 부모애착에서 자녀의 부모애착까지

이전에 Bowlby가 주장하던 애착의 대물림에 대해 Main과 Goldwyn(1984)은 부모의 애착유형에 따라 자녀에 대한 태도와 양육행동이 달라지고 이것이 자녀의 애착유형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후 Bretherton (1991)이 애착이 한 개인의 전생애 동안 발달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전달된다고 지지적인 제안을 하면서 애착안정성과 전생애적 관점에서의 애착연구가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특유의 문화에서 부모 자녀간의 애착관계는 비교적 안정도가 높고 상호성이 있다고 이해된다. 모의 조모에 대한 애착과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높은 일치율을 통해 2세대 간 애착의 전수는 증명되어왔다(최해훈, 이경숙, 김태련, 1998; 김유미, 2007). 3세대에 걸친 애착지속성은 주로 조모-모-자녀(딸)로 이어지는 여성들 사이의 세대 간 전이로서 연구된다. 조모-모의 애착과 모-자녀의 애착이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낸 한 연구에서는 모의 조모에 대한 애착이 자녀에 대한 심리적 태도에 영향을 미쳐 다시 이후 세대에 전달되는 형태로 애착지속성을 설명하였다(박성현, 조연은, 전은희, 이숙, 최혜란, 이정순, 소명희, 김상희, 박용임, 1995). 다른 문화권에서도 외조모-모-자녀의 애착유형 일치성을 가지고 세대 간 전이의 기제를 설명하고 있어 애착지속성에 힘을 실어주었다(Benoit & Parker, 1994). 하지만 Wayne, Ronald, Christine 그리고 Connor(200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의 모에 대한 애착과 조모의 모에 대한 애착 지각은 긍정적인데 반해 심리적 물리적 거리에 따라 모의 조모에 대한 애착 지각은 약하다고 나타난다. 부모 자녀 간의 애착 일치율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여러 세대를 걸쳐 나갈수록 애착이 전이된다는 것은 일관된 설명을 따르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적작동모델의 기능을 통해 부계 혹은 아들로 이어지는 세대 간 전이의 가능성을 연구해보려는 접근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세대에 걸친 애착지속성과 함께 부계 중심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녀의 발달과 어머니 애착

생존과 애착대상에 대한 본능적인 동기화를 설명할 때 영아와 어머니의 관계에 먼저 시선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연스러운 접근일 수 있다. 영아는 세상에 나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어머니와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생물학적, 정서적,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적인 사회구조에서 어머니가 양육을 전담하도록 요구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애착주체는 주로 양육 장면과 연관 지어 관찰되거나 연구되어져 왔다. 최근 들어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지만 과거에는 부모애착이 곧 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라는 등식이 적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녀의 발달과 어머니 애착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안정 애착을 형성한 어머니는 양육과정에서 자녀의 욕구와 의사소통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자녀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또, 청년 초기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유지할 때 가족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자아탄력성도 높게 나타나며(Kobak & Sceery, 1988), 심리적인 안녕감이 적절하게 유지되어 학교생활 적응에 강점이 될 수 있다(심재인, 2000). 반면에 어머니와 회피적인 애착을 형성한 경우 정서를 알고 의식하는 정보처리 과정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서경험을 종종 무시한다고 한다(Wei, Vogel & Ku, 2005). 이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불안정 애착을 유지하는 자녀는 위험상황에서 애착대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 부정적인 정서 조절 방법으로 위협적인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회피를 사용한다(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이렇듯 어머니애착이 인간 삶의 패턴에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확실하지만 어머니가 자녀의 애착발달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발달과 아버지 애착

일부에서 애착은 생물학적인 모에게 독점적으로 적용되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가용적이지 않을 때 애착대상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아버지 양육개입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의 강점이 드러나면서 아버지애착에 관한 고전적 연구들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Baldwin, Keelan, Fehr, Enns & Koh-Rangarajoo, 1996). Bowlby는 근본적으로 유아에게 있어 아버지는 중요한 애착대상이라고 여겼다. 아버지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자기가 치감은 물론 이후 관계에 있어 우호적인 모델로 인식되어 대인관계에서도 유능감을 발휘한다는 주장이다. Kotre와 Hall(1990)은 자녀양육

에서 출산, 교육, 문화전수 3가지 차원에서 기능적인 아버지 역할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자녀양육참여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능동적인 자녀양육행동과 영유아의 애착유형이 상호 관련성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Inge, David 와 Golby(2005)는 애착대상으로서 아버지, 놀이 친구로서 아버지, 사회화 대리인으로서 아버지를 나누어 초기 아버지와의 관계가 자녀의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론을 넘어 실험적인 종단연구에서는 놀이친구로서의 아버지의 발달적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민감한 아버지는 이후 아동의 자존감과 자기 신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Grossmann, Fremmer, Kindler, Scheuerer & Zimmermann, 2002). 또, 어린 시절 아버지와 높은 애착을 보고한 자녀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유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기대되며(이희영, 최태진, 2007) 연령증가와 함께 외부 세상을 탐색할 때 기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Flume, 2001). 아버지 개입은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며(Wolfe & Betz, 2004), 아버지와 애착이 청년후기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선, 2008). 즉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 애착과 진로탐색자기 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이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을지 알아본 결과 아버지와 안정적인 애착이 아버지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이것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인애착연구를 실시한 조영주와 최해림(2001)의 연구에서 남자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성인애착 즉, 또래나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는 남학생의 경우 동성친구에 대해 비교적 쉽게 의지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와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후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에 걸쳐 애착차원에서 아버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함축하게 된다.

애착과 대인관계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는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심리적 관계를 뜻한다. 먼저 두 사람 사이의 연계에 초점을 둔 Collins와 Repinski (1994)의 관점에서 보면 대인관계 개념은 상호성에 그 핵심을 둘 수 있다.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관심을 두게 되고 공동의 과제나 적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정서적인 연계를 포함하는 대인관계 개념의 본질이 변화하지는 않지만 대인관계 양상은 발달단계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기회도 늘어난다. 청년 후기에 이르면 인지적인 기능이 향상되고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면서 지지 능력도 증가하게 되어 세련되고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는 청년기에는 대인관계 패턴의 성차가 의미 있는 주제로 부각된다. 전통적으로 주도성과 친교성 차원(Bakan), 또는 도구성과 표현성 차원(Parsons)에서의 성차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어 왔다. 그러나 Baumeister와 Sommer(1997)의 제안처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관계성이 사회의 요구와 부합하여 외부적으로 표출되는데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른 양태

로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여성과 남성 모두 관계지향적인 특성이 있지만 다만 여성은 친구나 가족처럼 심리적으로 가까운 소규모 집단 내의 관계를 원하고 남성은 사회적으로 가까운 직장과 같은 집단 내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소망하는 부분이 클 것이다. 나아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집단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적인 집단의 조화를 위해 개인 내적인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관계에 초점을 두게 된다는 주장들(Markus & Kitayama, 1994; Mesquita, 2001)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우리나라 남성들의 관계지향성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게 된다.

애착과 대인관계의 관련성은 오랫동안 흥미로운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Cassidy(1988)에 의하면 불안정 애착 유아의 경우 집단에서 자신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과 상황을 연결 짓는 이해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방어적인 태도를 쉽게 나타내기 때문에 또래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6세 아동도 협조성, 사회적 활동성, 과민성, 불안정성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능력이 애착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정애착의 영아일수록 협력성 및 대인간 문제해결사고가 높았다(조복희, 양연숙, 김암이, 장미자, 곽혜경, 한유미, 1997). 또한 부모와의 높은 애착수준은 아동기 자녀의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등과도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영 등, 2007). Shaffer(1999)는 양육자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자기 및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여 이후 사회적 관계 내에서의 적응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성인기에도 애착 안정성이 정서조절,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는데, 신지옥(2006)에 의하면 성인의 경우 애착 안정성이 정서를 매개로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애착은 발달 시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인관계와 관련되고 있는데, 애착과 대인관계의 연결과정은 부모-자녀 관계가 안정적일수록 독립성 발달 뿐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또한 유능하게 형성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불안정한 부모-자녀 애착의 경우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대인 문제를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Filsinger & Lamke, 1983). 종합하면 애착과 대인관계에 대한 일련의 선행 연구들은 생애 초기에 타인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어 외부 환경에서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전 발달 단계에 걸쳐 애착수준이 지속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련된다는 일관된 보고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를 중심으로 애착주제를 부모-자녀 간 애착관계 뿐 아니라 부모의 부모애착 변인까지로 확장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기존의 애착 연구들이 주로 여성 중심으로 연구되어왔다는 한계점에 주목하여 남성을 대상으로 애착과 대인관계의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애착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동시에 성별에 따른 차이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애착유형과 남자대학생의 애착유형은 얼마나 유사한가?
2. 남자대학생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3. 자(子)의 부모애착, 부모의 부모애착과 자의 대인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4. 자(子)의 부모애착, 부모의 부모애착은 자의 대인관계에 어떠한 설명력을 갖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 및 대전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부모의 응답을 받기 위해 부모와 동거할 경우 1주, 분리해서 거주할 경우 3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부모의 응답이 포함된 총 254부의 설문지 중 별거, 이혼, 유복자 등 개인사정에 따라 설문지 누락된 경우 혹은 무작위 응답 등의 이유로 제외된 33부를 제외하고 최종 221쌍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남자대학생은 애착유형, 부모애착,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을 확인하는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남자대학생의 부모는 애착유형과 부모에 대한 애착을 보고하는 질문지를 보고하였다.

애착유형

남자대학생과 부모의 애착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김동직과 한성열(1997)이 번안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4범주 성인애착 척도(Relationship Questionnaire: RQ)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따라 자기모델과 타인 모델 각각 2개를 기초로 4가지 애착유형(안정

형, 회피형, 몰입형, 두려움형)이 설계된다. 4가지 애착 양식을 읽고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를 7점 척도 내에 표시한다. 먼저 4가지 애착 범주 중에서 선택한 애착유형과 7점 척도로 표시한 것 중 가장 높은 것이 일치하면 이를 개인의 관계유형으로 보았다. 두 가지 유형을 같은 점수로 평가했을 때는 자신이 선택한 유형을 그 사람의 애착유형으로 해석했다. 박은영(1998)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1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부모 애착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청년후기로 분류하였기에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청소년들의 부, 모, 또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것을 옥정(1997)이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본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PPA-R의 각각 25문항의 부, 모 애착안정성만을 측정하였으며 이는 ‘상호신뢰차원’, ‘의사소통차원’, ‘소외차원’ 등 3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형 5점 척도로서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이 척도는 총점만을 이용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와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91, .90이었다. 이전에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애착수준을 살펴본 연구에서 아버지 애착척도 .92, 어머니 애착척도 .90 이었던 결과와 비슷하다(신지은, 방희정, 윤진영, 2009). IPPA-R을 작성한 옥정(1997) 연구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애착척도 내적합치도가 각각 .93, .92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남자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김창대와 김수임(1999)이 번안한 Buhrmester, Furman, Wittenberg와 Reis(1998)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각 하위영역 내용은 가족환경에서 벗어나 외부 사람과 연결하는데 요구되는 '처음 관계 맺기',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는 '권리주장', 타인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는 '자기노출', 긍정적으로 관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서적지지', 관계 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기능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인갈등 다루기' 능력 등 5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8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 내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새롭게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각 요인별 요인부하량이 .45 이상으로 공통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어 설문단계에서 모든 문항을 포함시켰다. 문항들의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하위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살펴본 결과, .60에서 .78 사이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번안 후 처음 실시된 김창대와 김수임(1999)의 연구에서 하위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2에서 .91 사이로 드러났다.

부모의 부모에 대한 애착

Hazan과 Shaver(1987)가 제작한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정혜승(2000)이 번안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부의 부모와, 모의 부모에 대한 애착경험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문항

은 5점 Likert 척도로 나타낸다. 부정적인 문항에서 역채점을 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어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부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질문지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고 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질문지의 내적합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였을 때는 각각 .90, .88 이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들의 통계 분석은 SPSS/PC+ Version 15.0을 사용하여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인 통계 부분을 살펴보았다.

첫째, 부모-자(子) 애착유형 일치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백분율과 빈도를 구하였다.

둘째, 자(子)의 부모에 대한 애착안정성의 정도(고/저)에 따라 집단 간 대인관계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집단 간에 사후분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子)의 부모애착, 부모의 부모애착, 자의 대인관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대인관계에 대한 독립변인(자(子)의 부모애착, 부모의 부모애착)들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부모애착과 자의 대인관계에서 자의 부모애착과 부모애착의 매개효과를 보기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절차를 사용하고 Sobel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남자대학생의 부모 애착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차이

남자대학생 자녀와 부모의 애착유형 일치

부모 및 자(子)의 애착유형 일치율을 살펴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대응일치도 분석을 통해 부-자 일치유형(모와는 불일치)과 모-자 일치유형(부와는 불일치) 순서는 안정형, 몰입형, 두려움형, 회피형으로 각각 동일하게 보여 지고 있었다. 부-모-자 모두 안정형으로 동일한 애착 유형을 나타내는 경우가 불안정 애착유형(두려움형, 몰입형, 회피형) 일치율보다 우세하였다.

남자대학생의 부애착과 모애착 정도에 따라 대인관계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부모에 대한 애착점수 중앙값을 기준으로 부애착 점수와 모애착 점수 모두 높은 집단(1 집단), 부애착 점수는 높고 모애착 점수는 낮은 집단(2집단), 부애착 점수는 낮고 모애착 점수는 높은 집단(3집단), 부애착 점수와 모애착 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4집단)으로 구분하고 일원변량분석과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표 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분석결과 4개의 모든 집단에서 집단 간 대인관계 점수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3, 217)=27.03, p<.001$]. 사후검증 결과, 1집

표 1. 부모 및 자(子)의 애착유형 일치율(%)

일치관계	일치유형		
	안정형	불안정형 (두려움, 몰입, 회피)	합계
부-자 일치	25.79(57)	16.74(37)	42.53(94)
모-자 일치	32.13(71)	8.14(18)	40.27(89)
부-모-자 일치	16.29(36)	1.81(4)	18.10(40)

※ ()은 빈도.

표 2. 중앙값기준 자(子)의 부모애착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차이 검증

구분	부애착고, 모애착고 (제1집단) (N=103)	부애착고, 모애착저 (제2집단) (N=66)	부애착저, 모애착고 (제3집단) (N=3)	부애착저, 모애착저 (제4집단) (N=49)	F	사후검증 scheffé
대인 관계	147.89	137.02	121.67	129.43	27.03***	1>2, 3, 4 2>4

*** $p<.001$

단이 2집단, 3집단, 4집단보다 모두 유의하게 더 높은 대인관계 점수를 보여주었다($p < .001$). 2집단이 4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대인관계 점수를 나타내어 모애착이 모두 낮을 경우, 부애착이 높은 집단이 부애착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자(子)의 부모애착, 부모의 부모애착, 대인관계 능력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이 상호 간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자(子)의 부모애착, 부모의 부모애착, 자

의 대인관계 총점 및 하위요인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였다. 대인관계 총점은 자의 부애착($r = .59, p < .01$), 자의 모애착($r = .55, p < .01$), 부의 모애착($r = .20, p < .01$), 모의 모애착($r = .19, p < .01$) 순서로 상관관계가 드러났으며 부의 부애착과 모의 부애착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대인관계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자의 부애착과의 상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의 부애착은 권리주장요인($r = .44, p < .01$)과 자기노출요인($r = .49, p < .01$)에서 자의 모애착보다 더 큰 상관을 보이고 있다. 자의 처음 관계 맺기와 자의 부애착($r = .41, p < .01$)의 상관은 자의

표 3. 주요 변인들의 단순상관관계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녀의 부모애착												
1. 자-부애착	-											
2. 자-모애착	.81**	-										
부모의 부모애착												
3. 부-부애착	.20**	.16*	-									
4. 부-모애착	.14*	.12	.52*	-								
5. 모-부애착	.10	.13*	.23**	.15*	-							
6. 모-모애착	.11	.17*	.19**	.25**	.53**	-						
7. 대인관계(전체)	.59**	.55**	.12	.20**	.07	.19**	-					
8. 처음관계맺기	.41**	.41**	.11	.13	.11	.13	.79**	-				
9. 권리주장	.44**	.34**	.14*	.12	.04	.09	.61**	.39**	-			
10. 자기노출	.49**	.43**	.07	.18**	.04	.09	.82**	.62**	.44**	-		
11. 정서적지지	.49**	.48**	.09	.15*	.08	.23**	.81**	.50**	.30**	.60**	-	
12. 대인갈등다루기	.32**	.33**	.00	.16*	-.01	.14*	.57**	.27**	-.01	.30**	.58**	-

* $p < .05$, ** $p < .01$

모애착과 동일한 정적 상관관계를 유의미하게 나타내고 있다. 자의 정서적지지와 자의 부애착($r=.49, p<.01$)과의 상관도 자의 모애착($r=.48, p<.01$)과의 관계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남자대학생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자(子)의 부모애착, 부모의 부모애착의 설명력

앞서 상관분석을 통해 자의 대인관계와 부에 대한 애착의 높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자(子)의 대인관계에 대한 자의 부모애착, 부모의 부모애착의 설명력과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남자대학생의 부모애착, 부모의 부모애착이 자(子)의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단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인 자의 부모애착과 부모의 부모애착 중에서 남자대학생 자녀의 대인관계를 예측하는 최적의 변수들을 탐색하기 위해 단계

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유의미하게 나온 결과만을 표 4에 제시하였다.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남자대학생 자의 대인관계 전반에 있어 자의 부 애착($\beta =.58, p<.001$)이 가장 유의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리주장($\beta =.44, p<.001$)과 자기노출($\beta =.49, p<.001$)은 자의 부애착에 의한 설명이 가장 두드러진 영역이었다. 반면 남자대학생 자녀의 모 애착은 처음 관계 맺기, 정서적지지, 대인갈등 다루기($\beta =.33, p<.0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모의 모 애착은 대인관계 전체와 정서적지지 변인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부의 모애착과 자(子)의 대인관계에서 자-부애착의 매개효과

부의 모애착이 자녀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子)-부애착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의 모형에 의거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

표 4. 자(子)의 부모애착, 부모의 부모애착이 자의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 ²	F
대인관계(총점)	자-부애착	.58	10.68***	.35	118.85***
	모-모애착	.12	2.22*	.36	4.91*
처음관계맺기	자-부애착	.24	2.27**	.17	44.32**
	자-모애착	.21	2.02**	.18	4.07**
권리 주장	자-부애착	.44	7.21***	.19	52.02***
자기 노출	자-부애착	.49	8.22***	.24	67.64***
정서적 지지	자-부애착	.30	3.07**	.24	67.47**
	모-모애착	.17	2.83**	.27	9.63**
	자-모애착	.20	2.01*	.28	4.05*
대인갈등다루기	자-모애착	.33	5.21***	.11	27.15***

* $p<.05$, ** $p<.01$, *** $p<.001$

표 5. 부-모애착과 자(子)의 대인관계에서 자-부애착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β	t	R^2	F
1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부-모애착 → 자-부애착	.14	2.06*	.02	4.22*
2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부-모애착 → 대인관계	.20	3.02**	.04	9.10**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부-모애착 → 대인관계	.12	2.21*	.37	62.93***
	2) 자-부애착 → 대인관계	.58	10.59***		

* $p < .05$, ** $p < .01$, *** $p < .001$

시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한데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부-모애착이 매개변인인 자-부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beta = .14, p < .05$) 나타나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두 번째 단계로 독립변인인 부-모애착이 종속변인인 자녀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고($\beta = .20, p < .01$),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의 모애착($\beta = .12, p < .05$)과 매개변인인 자-부애착이 자신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게 나타나($\beta = .58, p < .001$) 매개효과 검증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대인관계 설명량을 살펴보면, 부-모애착의 설명량은 단독일 경우 4%($F(1, 219) = 9.10, p < .01$)에 불과하였지만, 자-부애착이 투입되었을 때는 37%($F(2, 218) = 62.93, p < .001$)로 늘어 총 33%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이 매개변인을 통제된 후에 줄어들었는데 이 때, β 계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의 모애착은 자의 대인관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부애착을 통한 부분 매개효과도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의도 검증 결과,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위 통계결과를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다($z = 2.02, p < .05$).

모의 모애착과 자(子)의 대인관계에서 자-모애착의 매개효과

자(子)의 부 매개효과 과정과 동일하게 Baron과 Kenny의 모형에 의거하여 모의 모애착이 자의 모애착을 매개하여 자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모의 모애착이 매개변인인 자-모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beta = .17, p < .01$) 매개모형의 1단계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2단계 종속변인의 독립변인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모의 모애착이 종속변인인 자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eta = .19, p < .05$). 그러나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의 모애착이 자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표 6. 부-모애착과 자(子)의 대인관계에서 자-모애착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β	t	R^2	F
1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모-모애착 → 자-모애착	.17	2.53*	.03	6.41*
2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모-모애착 → 대인관계	.19	2.79**	.03	7.81**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모-모애착 → 대인관계	.10	1.68	.30	48.77***
	2) 자-모애착 → 대인관계	.53	9.31***		

* $p < .05$, ** $p < .01$, *** $p < .001$

력은 유의하였으나($\beta = .57, p < .001$) 모의 모애착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10$). 모-모애착 단독으로는 3% [$F(1, 219) = 7.81, p < .01$]에 불과하였지만, 자녀-모애착이 투입되었을 때는 설명량이 30% [$F(2, 218) = 30.57, p < .001$]로 늘어 총 27%가 증가하였다. β 계수가 무의미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어 자-모애착은 모-모애착과 자의 대인관계에서 완전 매개(full mediation)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 = 2.43, p < .05$).

논 의

청년 후기 남자를 대상으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내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대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자(子)의 애착유형 일치율 분석 결과, 아버지와 아들의 애착유형이 일치하는 비율이 어머니의 애착유형 일치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 아들과 부모 모두 안정

형으로 일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모와는 안정형으로 일치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반면에 아버지의 경우에는 안정형 뿐 아니라 불안정 애착유형의 일치율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본 결과처럼 안정 및 불안정 애착유형 일치 패턴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성의 부모와 유사한 애착유형 패턴을 보인다는 지지적인 선행연구결과가 있다(Bretherton, 1991; Benoit & Parker, 1994).

둘째, 부모에 대한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청년기 남자대학생이 부와 모 모두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했을 때 대인관계에서 유능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는 Filsinger와 Lamke(1983)의 연구와 불안정정보다 안정적인 애착유형을 지닌 경우 대인관계 문제 수준이 낮다는 문혜정(2005)의 연구에 의해 뒷받침 되는 사실이다. 모애착은 모두 낮고 부애착 정도가 다른 2집단과 4집단의 경우, 2집단이 4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점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모와의 애착이 낮더라도 부와의 높은 애착안정

성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남자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에 있어 부와의 애착안정성 효과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셋째, 남자대학생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과 자(子)의 부모애착, 부모의 부모애착의 관련성에 대해 의미 있게 살펴봐야 할 결과는 권리주장,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등의 하위요인에서 자의 부모애착 안정성 수준과 대인관계 능력의 상관성이 자의 모애착 수준과 대인관계 능력과의 상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는 데 있다. 자녀의 부모애착보다 자녀의 모애착이 여자대학생 자녀의 대인관계와 보다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 신지은 등(2009)의 연구와 비교하면서 동일한 성의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이해해 볼 수 있다.

넷째, 남자대학생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을 예측하는 자(子)의 부모애착 수준과 부모의 부모애착 수준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대인갈등다루기를 제외한 처음관계맺기, 권리주장,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등의 대인관계 하위요인에서 자의 부모애착 수준이 가장 의미 있는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딸과 신체 접촉을 더 많이 하는 것에 비해 아버지는 아들과 신체 접촉 및 상호작용을 시도하기 때문에 모녀, 부자지간에 애착안정성이 높다는 지지적인 연구가 있다(양미경, 조복희, 2000). 또한 아버지와의 놀이 활동이 이후의 또래 관계에서 유능성을 발휘하게 한다는 Kerns와 Barth(1995)의 연구를 통해 사회적 유능성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부모애착이 자(子)의 부모애착을 부분 혹은 완전 매개하여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Baron

과 Kenny의 매개검증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부의 모 애착 안정성 수준은 자의 대인관계에 대해 다소 낮지만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자의 부모애착을 부분 매개하여 더 높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모의 모애착은 자의 모애착을 완전매개 하였을 때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는 자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매개로 부모의 모 애착의 질이 세대에 걸쳐 전달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부모의 마음에 있는 내적작용 모델을 통해 형성된 내적 표상이 아들의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Ross & Thomson, 2008). 이전에 중간 세대인 모를 통해 조모와 자녀 사이에 애착의 질이 전이될 수 있다고 한 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Benoit & Parker, 1994; 박성현 등, 1995).

이상의 연구결과와 결론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남자대학생 자녀에게 있어 아버지애착의 관련성 및 영향력이 어머니 애착에 비해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子)의 부모애착을 매개로 부모의 부모애착이 자녀의 애착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 본 연구 결과는 애착의 정서적인 부분이 여성에게만 국한된 주제가 아니며 남성에게도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다양한 아버지 역할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에 의미 있는 사실을 전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가 주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 혹은 딸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애착유형 일치율을 설명해 온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청년 후기에 해당하는 남자대학생을 통해 부모와의 애착 일치율을 살펴보고

남자대학생 자녀와 부의 애착 유형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남자대학생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에 있어 어머니애착보다 아버지애착과의 상관성이 더 컸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과거 일부 연구들은 자녀에게 아버지역할과 어머니역할이 구별되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인관계 하위 영역에서 유사한 패턴으로 자녀의 유능성과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부모역할이 차별적이지 않다는 것을 규명한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셋째, 애착유형 일치율, 자(子)의 부애착 수준과 대인관계 능력의 상관 및 설명력 등을 살펴보면 아들에 있어 아버지 애착안정성의 중요성을 일관성 있게 확인하였다. 게다가 매개효과 모형을 통해 자의 부모애착을 매개로 부모의 부모애착이 자녀의 특성에 설명력을 가짐을 확인한 바, 내적작동모델에 의해 부모의 부모에 대한 내적표상이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였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이제까지 모계를 중심으로 애착지속성의 주제가 다뤄진데 부계 뿐 아니라 조모-모-자로 연결되는 세대 간 전이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였음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대전 소재 남자대학생과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여 제한적이다. 또한 양친 모두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동거상태의 부모에게서 자료가 수집되었고 상대적으로 자녀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출하는 가정 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남자대학생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후에는 다양한 집단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성별, 가정형태, 사회계층 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양적 측정도구를 통한 방법론적인 한계가 결과 해석에 있어 제한적이다. 우선 자기보고식 검사의 사회적 바람직성, 기억 왜곡, 방어적인 응답 등에 의한 오류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또, 남자대학생 및 부모의 가능한 애착대상과 조건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애착을 유형으로만 구분하는 양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존 검사와 더불어 질적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세대 간 전이를 입증하는데 있어 아들의 부모애착만을 매개로 한 부분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가족 역동 뿐 아니라, 문화적인 기대, 사회적지지 등 애착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도 함께 고려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한 이제까지 2세대나 3세대를 주로 연구되어 왔는데 종단연구를 통해 세대에 걸쳐 얼마나 오랫동안 애착의 질적 특성이 지속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직, 한성열 (1997). 한국 대학생의 애착 유형 분포와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91-109.
- 김유미 (2007). 애착의 세대 전이 유형별 관련 요인 비교 분석: 세대 간 전이되지 않는 애착유형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창대, 김수임 (1999).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학생연구.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35 (1), 83-95.
- 문혜정 (2005). 성인애착 및 자의식유형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수준의 차이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성현, 조연은, 전은희, 이숙, 최혜란, 이정순, 소명희, 김상희, 박응임 (1995). 3세대를 통해서 본 모-자녀 애착관계와 사회적 능력: 전생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86-93.
- 박영림, 최해림 (200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모 애착, 부부갈등 지각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741-755.
- 박은선 (2008). 아버지 애착과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탐색 효능감과 진로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은영 (1998). 애착유형에 따른 방어 전략의 효율성 비교.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방희정 (2009). 애착 연구를 통해 본 부모역할 (parenting)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1-25.
- 신지옥 (2006). 애착,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지은, 방희정, 윤진영 (2009). 애착과 대인관계: 여대생 부모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347-363
- 심재인 (2000). 청소년의 감성지능과 초기애착이 심리적 안녕감, 적응행동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미경, 조복희 (2000). 에릭슨의 발달과업으로 본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과 유아-아버지간 애착안정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144, 57-64.
- 옥정 (1997).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나현 (2005). 애착, 심리적 독립, 정서지능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남 (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 이희영, 최태진 (2007).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역할. 초등교육연구, 20(1), 23-41.
- 장휘숙 (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 정혜승 (2000). 어머니 자신의 부모애착 및 양육 행동과 자녀애착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복희, 양연숙, 김압이, 장미자, 곽혜경, 한유미 (1997). 유아의 애착행동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6).
- 조영주, 최해림 (2001).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71-91.
- 최해훈, 이경숙, 김태련 (1998). 영아의 애착유형과 성인의 애착표상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131-142.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 of attachment: A

-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ldwin, M. W., Keelan, J. P. R., Fehr, B., Enns, V., & Koh-Rangarajoo, E. (1996). Social-cognitive conceptualization of attachment working models: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1), 94-109.
- Baliant, M. (1959). Thrills and Regressions. London: Hogarth.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aumeister, R. F., & Sommer, K. L. (1997). What do men want? Gender differences and two spheres of belongingness: Comment on Cross and Madson (1997). *Psychological Bulletin*, 122(1), 38-44.
- Benoit, F. & Parker, K. C. H. (1994).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Child Development*, 65, 1444-1456.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Tavistock.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 (1991). The roots and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 P. Marris (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London: Routledge.
- Burhmr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9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 Cassidy, J. (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 olds. *Child Development*, 59, 121-134.
- Collins, W. A., & Repinski, D. (1994).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Continuity and change in interpersonal perspective. In R. Montemayor, G. Adams & T. Gullotta (Eds.), *Personal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CA: Sage.
- Filsinger, E. E., & Lamke, L. K. (1983). The lineage transmission of interpersonal compet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5, 75-80.
- Flume, H. (2001). Relational dimensions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s*, 59, 1-16.
- Grossmann, K., Grossmann, K. E., Fremmer-Bombik, E., Kindler, H., Scheuerer-Englich, H., & Zimmermann, P. (2002). The uniqueness of the child-father attachment relationship: Fathers' sensitive and challenging

- play as a pivotal variable in a 16-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1, 307-331.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azan, C., & Zeifman, D. (1994). Sex and the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5, p.151-178.
- Inge, B., J. David., & Golby, Barbara. (2005). Involved fathers of preschool children as seen by themselves and their wives: Accounts of attachment, socialization, and companionship.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7(3), 229-251.
- Kerns. K. A., & Barth. J. (1995). Parent-child attachment and physical play: Convergence across componen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their relations to peer competenc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2, 243-260.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tre, J., & Hall, E. (1990). *Seasons of life: Our dramatic journey from birth to death*. Boston: Little. Brown.
- Krantz, D., & McCeney M. (2001). Do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have an impact on organic disease? A critical assessment of research on coronary heart diseas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341-369.
- Mack, J. E. (1983). Self-Esteem and Its Development: An overview. In J. D. Mack & S. L. Ablon(Eds.), *The development and sustenance of self-esteem in childhood* (pp. 1-42).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Main, M., & Goldwyn, R. (1984). predicting rejection of her infant from mother's representation of her own experience: Implications for the abused-abusing intergenerational cycle. *Child Abuse and Neglect*, 8, 203-217.
- Main, M., & Weston, D. (1981). The quality of the toddler's relationship to mother and father: Related to conflict behavior and the readiness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2, 932-940.
- Markus, H. R., & Kitayama, S. (1994).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 and emotion: Implications for social behavior. In d. Kitayama & H. M. Markus (Eds.), *Culture, self, and emotion* (pp.89-130).
- Marvin, R. S., & Britner, P. A. (1999). Normative development: The ontogeny of attachment.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n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44-67). New York: Guildford Press.
- Mesquita, B. (2001). Emotions in collectivist and individualist contex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68-74.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 Motivation and Emotion*, 27, 77-102.
- Ross, A., & Thompson, R. A. (2008). Attachment-related mental representations: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0(4), 347-358.
- Ross, J. (2008). Parental attachment, interparental conflict, and late adolescents' emotional adjustment: The associations with social functioning.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69(2-B), 1364.
- Shaffer, D. R. (1999). Developmental psychology (5th). *Childhood & Adolescence*, Brookscole.
- Sroufe, L. A. (2005).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dulthood.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1(1), 97-123.
- Wayne Hill, E., Ronald L. Mullis., Christine A. Readdick, & Connor M. Walters. (2000). Intergenerational perceptions of attachment and prosocial behavior. *Marriage & Family review*, 30(1), 59-72.
- Wei, M., Vogel, David. L., Ku, T. Y., & R.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d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1), 14-24.
- Wolfe, J. B., & Betz, N. E. (2004). The relationship of attachment variables to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fear commitmen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2, 363-369.
- 1 차원고접수 : 2010. 1. 26.
심사통과접수 : 2010. 3. 16.
최종원고접수 : 2010. 3. 24.

The Relations among male College Students Attachment, Parent's Attachment and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Soo Min Hwang

Hee Jeong Bang

Ji Eun Shi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male student attachment, their parent's attachment to his or her own parent, and male college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Especially, this study was focusing on attachment generation and father's power of influence to son. The subjects were 221 male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located in Seoul and Daejeon. With the inventory of parent attachment(IPPA-R), the scale of interpersonal competence(ICQ) to students and the adult attachment scale(ASS) to their parents were used.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overall relationships among the attachment to father and attachment to mother were significant with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According to the result of multi-regression analysis, attachment to father predicted male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Except for Conflict Management, student's attachment to his father predicted 'Initiation, Disclosure, Emotional support, Negative assertion' in male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Father's attachment to his own mother was partly mediated by students-father attachment, and mother's attachment to his own mother was completely mediated by students-mother attachment, and effected in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Key words : attachment, mother attachment, father attachment, parent's attachment to their parents, interpersonal competence